

부산 음악비평문화의 최근 흐름 —정기간행물 3종에 게재된 음악비평의 정량적 분석—

김 원 명*

| 목 차 |

- I. 서론: 상황인식과 연구범위
- II. 정기간행물 3종의 발행 정보
- III. 『예술에의 초대』 비평목록과 분석
- IV. 『예술부산』 비평목록과 분석
- V. 『예술문화비평』 비평목록과 분석
- VI. 결론 및 제언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부산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 정기간행물이라 할 수 있는 월간 『예술에의 초대』와 월간 『예술부산』, 그리고 계간 『예술문화비평』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비평들을 통해 최근 7년 동안의 지역 음악비평문화의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세 잡지에 실린 비평들 중 음악관련(국악, 실용음악¹⁾ 포함) 비평을 전수 조사하여 목록으로 만들고, 그 횟수와 비중·필자·세 부장르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음악학부 교수 / [wmkim@ks.ac.kr](mailto:wkim@ks.ac.kr)

1) ‘국악’과 ‘실용음악’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본고의 논지 전개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세 잡지에 실린 음악비평 편수는 『예술에의 초대』에 87편, 『예술부산』에 144편, 『예술문화비평』에 65편으로 모두 296편에 달했다. 조사대상 기간이 약7년임을 고려하면 월평균 3.5편의 비평이 이루어진 셈이다. 음악회를 비롯한 전체 음악활동의 규모에 비해 비평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음악비평을 수행한 필자들의 수는 『예술에의 초대』에 13명, 『예술부산』에 37명, 그리고 『예술문화비평』에 21명으로 조사되었다. 두 잡지 이상에 중복 기고한 12명을 감안하면 실제 필자의 수는 5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단 한 편의 비평만 썼을 뿐이며, 2편 이상 쓴 필자들 중에서도 지속적·적극적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필자는 6~7명 정도에 그쳤다. 그럼에도 56명이라는 수치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향후 여건이 좋아진다면 음악비평 문화가 지금보다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비평 내용의 세부 장르를 살펴보면 두 월간지의 경우 서양 클래식음악 분야에 대부분 혹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관현악과 오페라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음악 행사에 집중되었다. 반면 『예술문화비평』의 경우 계간지의 특성상 시평의 비중이 두 월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고, 서양 클래식음악과 국악 그리고 실용음악의 비중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게재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주제어: 음악비평, 음악평론가, 부산, 예술에의 초대, 예술부산, 예술문화비평

I. 서론: 상황인식과 연구범위

부산 지역 음악문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질적,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부산문화회관(1988)> 건립 이후 <금정문화회관(2000)>을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여러 공연장들과 <국립부산국악원(2008)>이 지난 10여 년 사이 속속 건립되었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음악공연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근년에 이르러 서서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부산문화회관>은 개관한 지 거의 30년 만인 2017년에 시 사업소 체제에서 재단법인 체제로 운영 시스템이 전환되었고, 1973년 개관한 <시민회관> 역시 최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에 소속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가능성을 높였다. 변화에 앞선간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타 도시의 경우를 참고하면, 부산에서의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방향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음악공연을 위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지역음악문화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음악문화 전반에 걸쳐 골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주문화에 많이 치우쳐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창작이나 비평 분야가 음악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주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체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음악활동의 진단과 평가를 수행하는 비평 활동은 바람직한 음악문화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연주문화 성장에 비교하면 적절하고 충분한 여건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비평문화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들을 잠시 돌아보자. 전문 음악평론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 부산에서는 작곡가나 연주가, 혹은 일간지 음악담당 기자, 방송사 음악PD들이 비평 역할을 수행해 왔고, 1990년대에는 비평이론을 학습한 젊은 음악학자들의 등장으로 전문평론가 시대를 열었던 바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비평문화의 질적·양적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된 측면이 있었지만, 그 토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웠다. 90년대 말에 발표된 모 음악신문 칼럼에서 연구자는 “...음악평론가가 평론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평론활동을 할 수 있는 지면이 극히 제

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끔씩 하는 평론활동에 대한 대가도 그야말로 ‘검 값’이다. 대부분 연주가들의 생계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레슨 수입도 없다.(후략)”고 그 주된 원인을 밝힌 바 있다.

일견 개선되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척박한 비평 환경 속에서 2001년 12월 <부산음악평론가클럽>이 탄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3~40대 음악평론가 10여 명이 의기투합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이듬해부터 음악비평 전문지 계간 『음악과 비평』(영문명 M&C)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일간지에 비해 그 영향력을 비교할 수 없고, 월간지에 비해서도 시의성이 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에서 음악평론가들이 처음으로 단체를 결성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부산에서 최초로 음악비평 전문지를 발간했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음악과 비평』은 이후 6년간 발행되었고, 2008년 <한국음악응용학회>가 출범하면서 학술지 『음악응용연구』에 흡수·통합되었다. 『음악응용연구』는 『음악과 비평』의 정신을 계승하여 학술적 성격의 논문뿐만 아니라 지역음악문화에 관한 비평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성격이나 지면 분량이 비평 전문지에 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술지 연간 발행 회수가 1회에 그치면서 비평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²⁾

뿐만 아니라 지난 1990년대까지 능동적으로 비평문화의 한 축을 형성했던 일간지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수동적 자세로 전환해 갔다. 장기 불황의 그늘에다 종편방송과 모바일 매체의 급성장 등으로 종이신문의 수익구조가 점차 악화되면서 비용이 수반되는 외부 원고 청탁을 가급적 줄이게 된 것이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음악담당

2) 2011년~2017년 동안 발행된 총 6권(2015년 미발행)에 게재된 음악비평은 10편 이내로, 그 비중이 미미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기자들에 의해 작성되는 기사들 중 가끔씩 평론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나 그마저도 예전에 비하면 그 편수가 극히 미미한 느낌이다.³⁾ 근원적·구조적 문제를 안고 힘겹게 버텨온 지역 음악비평문화에 기존의 지면조차 줄어드는 악재들이 덮친 셈이다. 음악평론가 김창욱은 2011년에 발표한 글에서 “부산에는 월간 음악전문잡지가 없다. (중략) 지면이 적다는 것은 비평가의 행동반경이 그만큼 좁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평가의 수고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중략) 음악비평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러나 비평은 생계가 보장되는 ‘직업’이 아니며 자칫 하다가는 오히려 음악인 사이에서 필화(筆禍)를 자초하기 일쑤다.”며 비평 활동 부진의 원인을 제시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지역 비평문화의 환경이 그다지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음악비평에 관한 학술적 연구도 뜸해졌다. 이 기간 평론가들에 의한 음악비평집의 발간은 외견상 적지 않아 보이지만 이전 시기에 썼던 글을 모아 발간하는 속성상 연구대상 시기에 발표된 글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다만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가 2011년 여름에 창간한 계간 『예술문화비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음악비평문화에 단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예술문화비평』은 음악비평 전문지가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을 다룬 비평지이지만, 매호 평균 300쪽에 달하는 지면 속에 상당수의 음악비평을 담아내었다. 또한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는 공식적으로 전국의 문화예술을 비평 대상으로 하는 단체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관상 사무소를 부산시에 두기로 되어 있고, 비평지의 필진과 내용 역시 부산 지역 문화예술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지역 음악비평문화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3) 지역 일간지의 음악비평에 대해서는 추후 별개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보면 사실상 『예술문화비평』을 비롯하여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비영리조직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3종이 최근 지역 음악비평의 명맥을 유지해 온 셈이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 지역 일간지, 학술지 『음악융용연구』, 그리고 『음악춘추』, 『음악저널』, 『피아노음악』 등 서울에서 발간되는 월간 저널들에도 간간히 비평이 실려 있지만, 연구대상 기간 동안 부산 음악문화와 관련한 비평 게재 횟수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년 부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부산음악문화 관련 비평을 담고 있는 월간 『예술에의 초대』와 월간 『예술부산』, 그리고 계간 『예술문화비평』 등 3종의 정기간행물들을 중심으로 최근 부산지역 비평문화의 현주소를 정량적 측면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7년으로 잡았다. 최근 5년 혹은 10년으로 연구대상 기간을 잡을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2010년대를 조망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했고, 더구나 2011년은 연구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예술문화비평』이 창간된 해이므로 이것을 기점으로 잡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연구대상 내용은 이 잡지들에 실린 비평들 중 부산지역의 음악문화와 관련된, 혹은 부산지역의 음악평론가가 기고한 글들 중 성격상 음악비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글들이다(국악과 실용음악, 시평 포함). 우선 세 잡지에 게재된 비평들을 전수 조사하여 목록으로 만들고, 횟수와 비중, 저자, 세부장르, 그 외의 특징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근 음악비평의 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평 내용에 대한 정성적 분석은 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정성적 분석의 어려움과 위험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연구에서 조사된 300편에 가까운 비평문을 읽고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이 연구에

소요된 것 이상의 많은 시간과 지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II. 정기간행물 3종의 발행 정보

본고에서 다룬 3종의 정기간행물은 월간 『예술에의 초대』, 월간 『예술부산』, 그리고 계간 『예술문화비평』이다. 앞의 두 월간지는 부산지역의 대표적 공연장과 예술단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이며, 계간지는 전국 규모 민간단체가 발행하는 비평전문잡지이다. 창간은 『예술에의 초대』가 1992년으로 가장 빠르며, 『예술부산』이 5년 후인 1997년, 그리고 『예술문화비평』이 가장 늦은 2011년 이루어졌다. 월간지 2종은 부산지역 기관들이 발행하는 저널로서 당연히 부산지역 문화예술과 관련한 기사와 비평을 게재해 왔고, 『예술문화비평』은 타 지역과 관련한 비평도 게재하고 있지만 부산지역과 관련한 비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 잡지는 사실상 부산지역의 저널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월간 『예술에의 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이 발행하는 월간 잡지로, 1992년 1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2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결간 없이 발행되었고, 2017년 12월 통권 제312호를 발행하였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판형과 편집 체제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외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행되었다. 공연장의 기관지인 만큼 주로 <부산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특히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잡지 말미에 한두 편의 리뷰를 꾸준히 게재해 오고 있는 점은 기억할 만한 사실이다.

월간 『예술부산』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 부산광역시지회의 기관지로 1997년 봄에 창간되었다. 창간 당시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은 계간지로 발행되다가, 2004년부터 격월간지로 발행 주기가 짧아졌고, 그로부터 다시 약 8년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월간지로 바뀌어 발행되고 있다. 창간 20주년이 되는 2017년 12월 통권 제150호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앞서 소개한 『예술에의 초대』와 비교하면 창간 연도에서 5년 뒤지고, 처음부터 월간으로 시작했던 『예술에의 초대』와 달리 계간지로부터 시작하여 격월간을 거쳐 월간 잡지에 이른 과정은 차이가 있지만, 부산의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이 20년 이상 꾸준히 발행해 온,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발행되고 있는 잡지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학문적 의미와 중요성이 쌓벽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부산』은 산하에 10개 단위 예술단체⁴⁾들을 아우르고 있는 예총 부산지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이므로 편집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들 회원단체들에 대한 동등한 관심을 가져야 할 입장인 만큼, 음악 분야에 대한 비중이 『예술에의 초대』만큼은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에의 초대』의 경우 한 호에서 평균 두 편 정도의 비평이 실리고, 그 중 한 편 정도는 음악에 할애되고 있으며, 또한 음악 비평이 전혀 게재되지 않은 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예술부산』의 경우에는 음악비평이 한 편도 게재되어 있지 않은 호들도 더러 있는 반면 한 호에 서너 편 이상의 음악비평이 실린 경우도 상당수 있어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예술문화비평』은 2010년 끝자락에 결성된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가 2011년 여름부터 발행한 계간 비평잡지이다. 창간호부터 2014년 겨울호(제15호)까지 약 4년 동안 국배판 300쪽 분량의 잡지를 발행하였고, 2015년부터 때때로 면수를 200쪽 내외로 줄이거나 두 계절 합병호

4) 건축가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영화인협회, 음악협회

로 내기도 하면서 2017년까지 통권 제24호를 발행하였다.⁵⁾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문화비평』은 2002년부터 약6년 동안 <부산음악평론가클럽>이 발행했던 음악전문비평지 『음악과 비평』의 폐간과 함께 음악비평 활동이 쇠락해가던 2008년 이후 창간된 지역 유일의 문화예술 비평 전문지라는 점에서 음악비평사적 의미가 크다. 발행 주기가 계간이므로 앞서 소개한 두 월간지에 비해 시사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음악문화의 흐름을 긴 맥락에서 짚어보는 시평을 신기에는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 또 비평 대상 장르에 있어서도 『예술문화비평』은 앞의 두 월간지와 차별되는 역할을 해왔다. 『예술문화비평』의 편집 체제는 대체적으로 특집과 예술시평, 예술단평의 세 쪽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음악비평은 세 쪽지 모두에서 발견되나 대부분의 비평들은 예술시평과 예술단평의 두 쪽지에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져 있다.

Ⅲ. 『예술에의 초대』 비평 목록과 분석

1. 비평목록

<표1>은 2011년 1월호(통권229호)부터 2017년 12월호(통권312호)까지 총 84권에 게재된 비평들 중 음악비평에 해당하는 것만을 발췌하여 목록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음악이라 함은 대부분 서양 클래식음악을 의미하나, 가끔씩 국악과 연극이 서양 클래식음악과 결합된 경우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드물게 목록의 발행 월 칸에 빠져 있는 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호에 음악비평이 단 한 편도 게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5) 2016년 봄·여름과 가을·겨울은 각각 합병호로 발행되었음.

<표 1> 『예술에의 초대』에 게재된 음악비평 목록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 목	장르
2011년 (11편)	01	신설령	말려에 빠지다 (부산시향 2010송년음악회)	관현악 (시향)
	03	박진홍	팜페라 듀엣 휴(HUE.)의 어쿠스틱 콘서트	크로스 오버
	04	신설령	창극의 재발견 ‘칭’	국악
	05	박진홍	젊은 감각, 새로운 도전 모차르트의 코믹오페라 ‘코지판 투테’	오페라
	06	김창욱	청중에게 한발 다가선 을숙도명품콘서트	관현악
	07	신설령	소노리테 목관5중주 연주를 듣고	실내악
	08	박진홍	생의 시작에서 끝을 한자리에서 마주치다. 부산시향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관현악 (시향)
	09	박진홍	청소년 음악회, 뭐가 다르지?	시평
	10	신설령	동시대 예술가들의 시각세계를 규정한 것은 무엇인가? -부산시향 웰빙콘서트	관현악 (시향)
	11	박진홍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영화의 전당 개관 축하공연	관현악
	12	박진홍	임병원 제20회 바이올린 독주회	현악
2012년 (12편)	01	신설령	장한나 첼로 독주회	현악
	02	박진홍	부산시향 2012 신년음악회	관현악 (시향)
	03	신설령	부산국제음악제 협주곡의 밤	음악제
	04	박진홍	바로크음악의 재발견- 부산챔버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실내악
	05	신설령	부산시향 478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시향)
	06	박진홍	피아노, 그리고 네 가지 색깔	피아노
	07	신설령	우리 곁에 다가온 거장 정경화	현악
	08	박진홍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 수상자 축하연주회	콩쿠르
	09	신설령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관현악 (시향)
	10	박진홍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제
	11	신설령	‘카르미나 부라나’와 비보이	관현악
	12	박진홍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관현악 (시향)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 목	장르
2013년 (11편)	01	신설령	오페라 ‘산타클로스는 재판 중’	오페라
	03	박진홍	도심 속 일상 탈출, 카페 움 목요음악회 소프라노 장희진과 소리꾼 김아름	혼합
	04	신설령	이자람의 판소리 ‘억척가’	국악
	05	박진홍	음악을 통해 인간 브루크너를 만나다 -부산시향 489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시향)
	06	하순봉	화이부동의 세계-서울시향 부산연주회	관현악
	07	박진홍	토리스 제19회 하우스콘서트 -이종은 바이올린 독주회	현악
	08	신설령	서울바로크합주단 현악6중주를 보고	실내악
	09	김윤선	부산시립합창단 써머판타지를 보고	합창 (시립)
	10	박진홍	창작오페라 ‘해운대 장산국 이야기’	오페라
	11	박진홍	부산시향 오페라 인 콘서트 ‘리골레토’	관현악 (시향)
	12	하순봉	가거라!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를 타고	오페라
2014년 (11편)	02	박진홍	요한 슈트라우스 챔버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실내악
	03	하순봉	오인오색의 발렌타인-론 브랜튼 재즈 발렌타인 콘서트	피아노 (재즈)
	04	박진홍	을숙도 명품콘서트 ‘춘설’	관현악
	05	하순봉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을숙도명품콘서트 ‘골드베르크 변주곡’	첼발로
	06	박진홍	찬연한 음악, 500회를 흐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0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시향)
	07	신설령	모차르트를 가진 비엔나 챔버오케스트라	실내악
	08	박진홍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13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관현악 (시립청소년)
	09	김윤선	BS금융그룹의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음악회	관현악
	10	박진홍	일렉트로닉 클럽 오페라 박쥐	오페라
	11	하순봉	인류여 한 형제가 되자 -2014 부산국제합창제	음악제
	12	박진홍	도니제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꼬레아오페라단 10주년 기념공연	오페라
	01	신설령	음악선물- 김주원과 콰르텟Sol의 플루트 콰르텟 연주회	실내악
	02	하순봉	금관의 Guru들!	실내악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 목	장르
2015년 (12편)	03	박진홍	민요와 애창곡의 향연-부산시립합창단 제155회 기연주회	합창 (시립)
	04	신설령	봄의 축제-금정문화회관 2015 신춘음악회	관현악
	05	박진홍	‘봄의 제전’-부산시향 제509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시향)
	06	하순봉	음악으로 듣는 빅토르 위고!	음악극
	07	신설령	오페라 <아이다>를 보고	오페라
	08	박진홍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2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시향)
	09	신설령	유인촌의 오페라 스토리	오페라
	10	박진홍	S.Modern 타악양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타악
	11	하순봉	오인오색-부산시향 제514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시향)
	12	박진홍	관·현·국악의 만남- 부산심포닉밴드 제13회 정기연주회	혼합
2016년 (12편)	01	신설령	음악의 힘으로 기꺼이 나아가라-오페라 ‘마술피리’	오페라
	02	정두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내려놓음에 있다-부산시향 2016 신년음악회	관현악 (시향)
	04	신설령	손열음의 모던타임즈	피아노
	05	하순봉	바다의 봄,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부산시향 제518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시향)
	06	박진홍	부산신포니에타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	실내악
	07	신설령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0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시향)
	09	박진홍	여름 밤 해운대를 음악의 향기로 2016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관현악
	10	신설령	제3회 부산 챔버뮤직 페스티벌	음악제
		탁계석	오충근 베를린신포니를 지휘하다 정통 클래식 뉴 리더십	관현악
	11	정두환	다니엘 호프와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	실내악
		박진홍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클래식 향연’	관현악
	12	신설령	부산시립교향악단 Opera in Concert ‘사랑의 묘약’	오페라
	01	정두환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핀커스 주커만	관현악
		박진홍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범을 축하하다 부산문화회관 2016 송년음악회	관현악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 목	장르
2017년 (18편)	02	신설령	2017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합창
	03	박진홍	2017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카이와 함께하는 부산시향의 스윗발렌타인	관현악 (시향)
	04	신설령	새봄의 클래식-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	관현악 (시향)
		문성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국립부산국악원 2017 신춘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국악
	05	허순길	부산시립교향악단 ‘2017 교향악축제’ 일곱 번의 커튼 콜	관현악 (시향)
		김윤선	2017 노자와 베토벤	관현악
	06	신설령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II-바그너’	오페라 (갈라)
		김윤선	프랑스음악의 진수를 보여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관현악
	07	김옥균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휘, 브람스를 즐길 줄 아는 관객-부산시향 제530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시향)
	08	신설령	2017년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	실내악
	10	박진홍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I 실내악 전용 공연장에 거는 기대	실내악
		이일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 II 연주자, 관객을 만족시키는 클래식 전용홀	실내악
	11	김원명	부산시향 최수열 상임지휘자 취임연주회	관현악 (시향)
		김옥균	정희정의 소리로 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오페라 (갈라)
	12	곽근수	2017 그레이트 챔버시리즈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실내악
		김윤선	노자와 베토벤-희로애락	관현악

2. 비평의 외적 분석

1) 음악비평 게재 횟수와 비중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7년 동안 발행된 『예술에의 초대』 음악비평들을 살펴본 결과, 편집 체제에 있어 큰 변화 없이 ‘리뷰’라는 꼭지 명으로 1~2개의 비평을 매호마다 꾸준히 게재해 왔으며, 특히 부산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만큼 음악비평은 거의 매호마다 빠지지 않고 게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매년 거의 예외 없이 11편~18편의 음악비평이 실려 대상 기간 동안 총 87편이 게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상적으로 매달 두 편의 비평을 게재해 왔고, 그 중 한 편은 음악비평이며 다른 한 편은 타 장르의 비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음악비평이 전체 비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만 본다면 그 비중이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클래식음악 장르가 근년 <부산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를 고려하면⁶⁾ 그다지 적절한 비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공연 횟수 비중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음악비평의 비중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우연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2017년의 경우, 조사대상 11개호 중 1월, 4월, 5월, 6월, 10월, 11월, 12월 등 7개호에서 2편의 음악비평이 게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 6년 동안 한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 호에 단 한 편의 음악비평만 게재된 사실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로 보인다. 또한 지난 6년간 매년 총 11~12편의 음악비평이 게재된 데 비해 2017년에는 18편이 게재된 점도 긍정적 변화로 보인다.

6) 오재환 외, ‘부산시 문화회관 운영개선방안’(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 2014-10-553), 2014, 39쪽 <표II-12>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대관 장르별 분류(건수기준) 참조

2) 필자

조사대상 기간 동안 비평을 한 편 이상 기고한 필자는 모두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기고 횟수 순으로 보면 박진홍이 34편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신설령 27편, 하순봉 9편, 김윤선 5편, 정두환 3편, 김옥균 2편, 그리고 객근수, 김창욱, 탁계석, 문성철, 허순길, 이일세, 김원명이 각 1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박진홍과 신설령 두 평론가는 합하여 61편의 비평을 기고하여 전체 비평 중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 기간의 모든 해에 빠지지 않고 기고하여 『예술에의 초대』 리뷰를 사실상 주도하였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두 해에는 아예 두 평론가의 비평뿐이었다. 2013년 이후 하순봉과 김윤선이 등장하고, 2016년 이후 정두환과 그 외 필자들의 이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3) 비평대상 장르

비평 대상이 된 장르는 국악을 포함한 음악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정 장르에 포함시킬 수 없는 비평, 이를테면 장르 혼합적 영역, 음악페스티벌이나 음악콩쿠르 관련, 시평 등에 해당하는 글들도 적은 양이지만 가끔씩 지면에 등장했다. 음악 장르 중 가장 많은 비평 대상이 된 영역은 단연 관현악이다. 관현악 장르는 총 87편의 비평 중 38편을 차지하여 약44%의 비중을 보여주었고, 그 뒤를 이어 실내악 15편, 오페라 12편의 순이었다. 그 외에 현악 4편, 성악(합창 포함) 4편, 음악제 4편, 국악 3편, 피아노 3편, 혼합 장르 2편, 그리고 챔발로, 음악콩쿠르, 음악극, 시평 등이 각 1편씩 게재되었다. 3편의 국악비평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평들이 서양 클래식음악 장르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관현악에 대한 비평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원인은 무엇보다도

<부산시립교향악단(이하 시향)>에 대한 비평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시향 연주에 대한 단독 비평과 시향이 포함된 합동 연주에 대한 비평은 모두 23편으로, 전체 관현악 연주 비평 중 60%를 넘고 있다. 이는 『예술에의 초대』가 <부산문화회관>의 기관지로서 여타 민간 음악단체들에 비해 <시립예술단>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향이 <시립예술단> 내에서는 물론, 지역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비평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시립합창단>을 비롯한 다른 장르의 <시립예술단>들에 대한 관심과 비교하여 너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IV. 『예술부산』 비평목록과 분석

1. 비평목록

<표2>는 2011년 1·2월호부터 2017년 12월호까지 게재된 글들 중 음악평론에 해당하는 것을 발췌하여 목록으로 만든 것이다. 대부분 서양 클래식음악 관련 비평들이지만, 국악 관련 비평이나 시평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술부산』은 음악비평 성격의 글이 포함되어 있는 쪽지가 『예술에의 초대』만큼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2011년 이후의 편집 체제 하에서는 ‘예서제서’와 ‘들여다보기’ 등 두 쪽지에서 각 단위협회의 행사들을 다루고 있는데, 음악비평 성격의 글이 두 쪽지에 혼재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음악비평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성격의 글도 종종 섞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 두 쪽지가 아닌 다른

꼭지에서 시평 성격의 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⁷⁾ 따라서 특정 꼭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악비평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일일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표 2> 『예술부산』에 게재된 음악비평 목록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목	장르
2011년 (16편)	01/02	송필석	오페라 아리랑	오페라
		문성철	국악 전문단체 타로-문전성시	국악
		최 현	국립부산국악원-개원2년을 맞이한 국립부산국악원, 그 활동을 점검해본다	국악
		김창욱	2010년 부산음악계의 이슈들	시평
	03/04	김창욱	제6회 부산국제음악제	음악제
		김창욱	부산음악협회-신춘음악회	음협
		김창욱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창단연주회	피아노
		김지윤	국립부산국악원-토요신명무대	국악
	05/06	김창욱	부산문화회관	시평
	07/08	김창욱	부산시향, 색다른 기획 돋보였다	관현악 (시향)
	09	문성철	해금, 부산을 노래하다	국악
		김창욱	중심의 해체, 주변의 약진 일상적 생활예술의 재발견	시평
	10	김창욱	제2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문제는 기획이다	음악제
	11	문성철	국악칸타타-동래성 붉은 꽃	국악
	12	김창욱	2011 부산국제합창제	음악제
		김창욱	부산오페라단-나비부인	오페라
	01	김창욱	그랜드오페라단-송년 오페라갈라 콘서트	오페라
	02	김창욱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관현악 (시향)
	03	김원명	제7회 부산국제음악제	음악제
		문성철	국립부산국악원-자갈치아리랑	국악

7) 이를테면 2013년 4월호의 ‘창을 열다’ 꼭지에 게재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관련 글 2편 (<표2>참조)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목	장르
2012년 (16편)	04	송필석	을숙도의 이유 있는 혁명	관현악 (시향)
		안일웅	2012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첨명된 21C음악 신표현양식	작곡
	10	박유미	2012 제5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피아노
		윤성원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생각한다	음악제
	11	박원일	고(故) 오태균선생 추모음악회	
		이아름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42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이아름	금정예술제-동초소리와 해학창극	국악
		박진홍	제22회 부산신인음악회	혼합
		류태형	부산월드필하모니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쵸 부산	관현악
	12	양종모	부산국제합창제 운영, 이제 시작이다	음악제
		문성철	2012 강태홍의 소리	국악
		문성철	박대성류 아쟁산조보존회 창단공연	국악
2013년 (17편)	02	박진홍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신년음악회	관현악 (시향)
	04	한소자	2013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음악제
		이아름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창립콘서트	관현악
		이아름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실내악
		도용복	부산오페라하우스, 세계 최고 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오페라
		이해동	부산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소고	오페라
	05	이아름	제43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관현악
	06	최삼화	국제도시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꿈꾸다	오페라
	07	김윤선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성공기원 음악회	관현악
		김동녕	초여름 밤 퓨전 클래식 재즈	재즈
	09	문성철	김정애, 홍보가 완창 발표회	국악
		류태형	제5회 부산월드필하모니오케스트라	관현악
	10	서종우	해운대 장산국 이야기	오페라
		류태형	제6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관현악
	12	이아름	부산 신인음악회	혼합
		이아름	제6회 피아노 그랜드페스티벌	피아노
		김동녕	국악 2013 지역교류 상생	국악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목	장르
2014년 (30편)	01	이아름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마술피리’	오페라
	02	서종우	제9회 부산국제음악제-수준 높은 명품 실내악의 향연	음악제
		이아름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관현악
	03	이아름	금정문화회관 금정수요음악회	실내악
		류태형	다이내믹 부산 신년음악회 오충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관현악
	04	문성철	해아연 창단연주회-2014 활의 노래	국악
		이아름	브런치 콘서트	융합
	06	이아름	플루트 오케스트라단 프레멘토- 제4회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실내악
		이아름	제2회 부산 소극장오페라 파노라마	오페라
	07	김상훈	안일웅 작품발표회-삶의 가장자리I no.2	작곡
	08	서종우	제32회 을숙도명품콘서트	관현악
		이아름	춘향이 바이올린에 빠지다	융합
		이아름	부산소극장오페라연합회 창단공연 -La Traviata	오페라
	09	김윤선	BS 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혼합
		이아름	코레아오페라단-솔리스트가 들려준 사랑, 이별, 우정 이야기	오페라
		이아름	동래문화회관 제28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혼합
	10	이아름	제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제
		이아름	아르스디버 플루트 창단연주회	실내악
		이아름	소리쟁이 성악연구회 창단음악회	성악
	11	김동녕	가이아 컴퍼니-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국악
		이아름	제10회 부산국제합창제-목소리의 하모니	음악제
		이아름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음악제
		박규동	부산원로음악가회 제16회 정기연주회	혼합
		이아름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8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12	이아름	을숙도문화회관 제14회 대학교향악축제	음악제
		이아름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관현악
		김동녕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0회 정기공연	국악
		김동녕	한얼정악연구소 제19회 정기공연	국악
		김동녕	동래문화회관 제30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재즈
		하순봉	2014 부산 작·편곡음악제	음악제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목	장르
2015년 (18편)	01	이아름	제497회 금정수요음악회	실내악
		이아름	U.K.O 제35회 사랑 나눔 음악회	관현악
		김동녀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창단11주년 기념공연 회상	국악
	02	이아름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음악제
		이아름	UKO 유스 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김동녀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국악
		문성철	국립부산국악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함께 여는 새해	국악
		이아름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연주	관현악
	04	안일웅	2015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외국
	06	이아름	영화의 전당 마티네콘서트 꽃별의 라디오	국악
		이아름	문화나눔 콘서트 <행복한 5월> Dance with me	혼합
	07	이아름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08	김연희	제1회 을숙도오페라축제-삶과 죽음의 버섯피자	오페라
		김연희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창단20주년 기념음악회	관현악
	09	김보령	BNK금융그룹 제3회 행복한 음악캠프	혼합
	10	이아름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제
		정영진	2015 부산국악축제	음악제
	11	이아름	제11회 부산국제합창제	음악제
	01	이아름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오페라 마술피리	오페라
	02	이아름	제11회 부산국제음악제	음악제
	03	이아름	로이멘 앙상블의 노 프레임 심리 클래식	실내악
	04	김보령	국립부산국악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국악
		김창욱	소프라노 전지영 리사이틀	성악
		김보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8대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	국악
		이아름	위기의 예술계, 신예들의 반격이 시작되다 -부산신인음악회	혼합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목	장르
2016년 (32편)	05	이아름	쉬운 클래식, 라 무지카의 클래식	혼합
		이아름	강 건너 봄이 오듯 창단한 Bella Voce	성악
		김보령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	국악
		김동녕	최유리 해금 독주회	국악
	06	이아름	제52회 을숙도명품콘서트	관현악
		김동녕	부산국악작곡가회 제15회 연주회	국악
		신설령	장재혁 클라리넷 독주회	클라리넷
	07	이아름	KNN방송교향악단 창단연주회	관현악
		김동녕	청년국악 팀으로 뭉치다(1)	국악
		하순봉	러시아음악연구회 제5회 정기연주회 ‘러시아 풍경’	혼합
	08	이아름	제2회 을숙도오페라축제	음악제
		이동녕	청년국악, 팀으로 뭉치다(2)	국악
		황장수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30회 정기연주회	관현악
	09	김동녕	젊은 국악, 팀으로 뭉치다(3)	국악
		이아름	동래문화회관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	음악제
		김지은	세계를 빛낸 부산 출신 피아니스트 콘체르토 페스티벌	피아노
		하순봉	제7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 시리즈	음악제
	10	김동녕	제2회 부산국악축제	국악
		정두환	제9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관현악
		김윤선	이명진 리사이틀 10th& appassionato	첼로
		황장수	제3회 창작 오케스트라의 밤	작곡
	11	이아름	변화하는 세상 속, 클래식 음악가가 되는 길	피아노
		안일웅	부산시향 제522회 정기연주회 -삶의 밑동을 사유하게 한 연주 무대	관현악 (시향)
	12	김동녕	국악그룹 초아 제3회 정기 공연	국악
		황장수	제53회 향사회 정기 작곡발표회	작곡
	01	김보현	메시아합창단·부산M챔버오케스트라 -헨델의 메시아	관현악
		안일웅	부산시립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합창
	02	최은숙	국립부산국악원-굿이로구나!	국악

발행년도	발행월	저자	제목	장르
2017년 (15편)	03	정아람	부산바순앙상블 정기연주회 -情을 이야기하다	실내악
		김보현	최윤희 제17회 피아노 리사이틀	피아노
	05	권용현	국립부산국악원.이종록의 영제시조	국악
		김보현	부산피아노트리오-전곡기획연주 시리즈 I	실내악
	06	하순봉	꼬레아오페라단 -팔리아치&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페라
		김보현	음악의 정동-양옥진 첼로 독주회	첼로
	08	김민지	창작오페라 봄봄&아리랑 난장굿	오페라
		민달	한얼정악연구소 -시조로 들여다본 사랑이야기	국악
	10	류태형	제10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관현악
	11	하순봉	아지무스 오페라단-리콜레토	오페라
		김보현	부산 피아노 트리오	실내악
		정두환	부산의 오페라 문화	오페라

2. 비평의 외적 분석

1) 음악비평 게재 횟수와 비중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술부산』의 경우는 비평 성격의 글이 여러 쪽지에 분산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글의 형식과 내용도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어 일일이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비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통상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연구에서의 필요를 위해 몇 가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첫째, 필자가 제시되어 있는 글이어야 한다. 『예술부산』에는 비평 성격을 일부 혹은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글임에도 필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예서제서’ 쪽지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편집진 혹은 소속 기자(혹은 객원기자)가 내부적으로 작성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평에는 그 속성상 필자의 가치판단이 투영되며 필자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주인이 없는 글은 책임도 없는 글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비평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다만 필자의 자격 기준은 감안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필자가 음악평론가 직함을 쓰지 않았더라도(이를테면 기자나 PD, 작곡가나 연주가, 애호가 등) 비평적 성격의 글을 쓴 것으로 판단되면 포함시켰다(사실 음악평론가 직함은 엄격한 사회적 인증 과정이 없으며, 대개의 경우 본인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자격 기준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다).

둘째, 단순 사실 나열이나 소개가 아닌 ‘평가’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 음악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소개·나열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다. 프리뷰가 이러한 경우의 한 예이다. 특정 음악사건을 비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평가를 할 수는 없다. 프리뷰는 사건에 대한 소개 이상의 내용을 갖기 힘들고, 설사 평가의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건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한계가 있으므로 전형적 비평으로 보기 어렵다.⁸⁾ 또한 당시 주목받는 인물이나 단체, 공간,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소개에 머무는 글은 제외시켰다.

셋째, 일반적·역사적 사실이나 이론에 관한 소개나 설명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경향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비평적 성격의 글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들여다보기’ 쪽지에 담긴 글들 중에는 현재의 특정 음악사건·경향과 무관한 일반 내용을 다룬 연재물들이 상당 수 있었다.⁹⁾ 이러한 글들은 비평의 범주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뷰를 비평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연례적·주기적 행사의 경우 당해 년 행사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지난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의 속성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다.

9) ‘영화 속 음악’(2012.10~2013.01/김병기), ‘대중가요 100년사’(2012.05~2014.01/김은섭), 20세기 이후의 대중음악(2015.01~2015.12/이기영) 등

에 포함시키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그 편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외시켰다. 물론 특정 음악사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음악문화의 현재 흐름에 대한 시각을 담은 ‘시평(時評)’들은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글들을 다소 관용적으로 음악 비평의 범주에 포함시켜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까지 발행된 『예술부산』 총79권에 게재된 음악비평들은 모두 144편으로 나타났다. 매월 소속 단위협회 단체들의 활동 양상이 다른 만큼 음악비평이 차지하는 비중도 들쭉날쭉하여, 단 한 편도 실리지 않는 호들이 있는가 하면 무려 5편 이상 실린 호들도 5개나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각 호에 2편 내외의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87편이 실린 『예술에의 초대』와 비교하면 음악비평 편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¹⁰⁾ 눈에 띄는 점은 2014년과 2016년은 다른 해들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30여 편의 음악비평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 필자가 한 해에 집중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¹¹⁾

2) 필자

조사대상 기간 동안 비평을 한 편 이상 기고한 필자는 모두 37명으로 나타났다. 『예술에의 초대』 필자 수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수다. 이들의 기고 횟수는 필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총 비평 편수의 30%가 넘는 46편의 글을 기고한 필자가 있는가 하면, 단 한편의 글만 기고한 필자가 21명이나 되었다. 이들을 기고 횟수 순으로 보면 이아름이 46편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김동녕 15편, 김창욱 13편, 문성철 9편, 김보현·류태형·하순봉이 각 5편, 안일웅·김보령이 각 4편, 그 외 나머지 필

10) 『예술부산』이 『예술에의 초대』에 비해 지면 수가 20쪽 가량 많은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 이틀테면 2014년의 경우 30편의 글 중 이아름 필자가 17편을 기고하였다.

자들은 1~3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필자 주도 현상은 『예술에의 초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타나 37명의 필자 중 4명의 필자가 83편의 글을 기고하여 그 비중이 60%에 근접하였다.

비록 소수의 필자가 압도적 역할을 하였지만 37명에 달하는 필자들이 음악비평을 기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음악비평문화의 양적 확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비평 활동에 대한 적절한 자극, 이를테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비평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필자 집단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 이후 새로 등장한 필자의 수가 13명에 달해 그 가능성을 더 해주고 있다.

『예술에의 초대』에 등장한 필자들은 대부분 『예술부산』에도 기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예술에의 초대』에 압도적으로 많은 글을 기고한 박진홍과 신설령은 『예술부산』에서 불과 1~2편 정도만 기고하였고, 반대로 『예술부산』에서 비평을 주도한 이아름과 김동녀는 『예술에의 초대』에 단 한 편도 기고하지 않았다. 두 잡지에 각각 소수의 간판급 필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3) 비평대상 장르

『예술부산』의 비평대상 장르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악 분야의 비중이다. 앞서 『예술에의 초대』에서 단 3편에 불과하던 국악 비평이 『예술부산』에서는 31편이나 실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음악비평 144편 중 22%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김동녀와 문성철 두 필자가 각각 15편, 9편 등 적지 않은 국악 비평을 기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에의 초대』와 달리 『예술부산』은 10개 단위협회가 모여 결성된 예총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인 만큼 가급적 각 협회의 활동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 이러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예술에의 초대』가 서양 클래식 음악의 주요 활동무대라 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의 기관지인 만큼 국악에 지면을 할애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예술부산』의 경우는 특정 공연장의 활동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2008년 10월 개원한 <국립부산국악원>의 활동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국악 비평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두 잡지가 마찬가지였는데, 『예술에의 초대』는 한 편도 없었고 『예술부산』은 5편이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음악문화가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가 연주문화에 비해 창작·비평문화가 왜소하다는 점이며, 부산 지역의 음악문화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다만 이러한 현재의 음악문화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던져볼 필요가 있다.

『예술부산』의 음악비평들 중에 관현악을 다룬 글은 26편으로 세부장르들 중에서는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악축제를 다룬 글이 21편, 오페라는 17편으로 나타났다. 관현악 분야에 대한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큰 것은 두 잡지 모두 비슷하지만, 상대적 비중으로 보면 『예술부산』은 18% 정도에 그쳐 40% 이상의 비중을 보인 『예술에의 초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음악축제에 관한 비평은 『예술에의 초대』가 3편에 불과한 데 비해 『예술부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오페라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실내악이나 독주, 재즈, 그리고 시평 등에 해당하는 글들도 적은 양이지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 장르 분류에 있어서 두 가지 범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이들테면 오페라축제, 교향악축제 등)에는 음악축제 쪽으로 분류하였다.

V. 『예술문화비평』 비평목록과 분석

1. 비평목록

<표3>은 2011년 여름호(창간호)부터 2017년 가을호(통권24호)까지 게재된 글들 중 음악비평(국악·실용음악 포함)에 해당하는 것을 발췌하여 목록으로 만든 것이다. 『예술문화비평』이 전문비평지인 만큼 여기에 담긴 글들은 비평문으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앞서 『예술부산』의 분석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만 『예술문화비평』은 앞의 두 월간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필자가 타 지역의 음악문화, 혹은 부산음악문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편적 상황에 대해 비평한 글들이다.¹³⁾ 이는 『예술문화비평』이 비평 대상을 부산 지역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목록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부산 지역의 음악비평 현황을 살펴보는 것인 만큼, 필자와 비평내용 중 적어도 한 가지는 부산 지역 음악문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시 말해 부산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필자의 글은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타지에 거주하는 필자의 글이라도 그 내용이 부산음악문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정보 부족이나 그 외의 이유들로 인해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경우들도 있었음을 미리 밝힌다.

13) 이를테면, 최영애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십년 나기’(창간호), 윤대근 ‘광주창작음악 예술의 현황과 과제’(제2호), 정유하 ‘광주광역시 공연장’(제13호), 오지희 ‘대전 민간오케스트라의 자구적 노력을 주목한다.’(제24호) 등.

<표3> 『예술문화비평』에 게재된 음악비평 목록

발행년도	발행호	저자	제목	장르 및 구분
2011년 (8편)	창간호	김창옥	부산 음악비평의 현황과 분석	시평
		조용연	음악회 형식, 변해야 한다	시평
	제2호	이미원	음악회장의 그림자, 그리고 그 뒤	시평
		최 현	넘어야 할 한국음악의 대립과 갈등	시평(국악)
		최유준	멘토링, 서바이벌, ‘나가수’, 그리고 음악의 길	시평(실용)
	제3호	김창옥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를 내치지 마라	단평
		최 현	부산에 개국한 국악방송 FM98.5	시평(국악)
		서정환	5초 가수에 대한 단상	시평(실용)
2012년 (13편)	제4호	김창옥	청산해야 할 ‘뽕대’ 문화-대형 문화시설 건립에 즈음해서	시평
		문성철	오늘의 음악이 미래에는 전통이 된다	단평(국악)
		김혜정	‘살롱음악회’는 어디로-옛것 지키기	단평
	제5호	문성철	여백이 있는 음악은 싫증나지 않는다	단평(국악)
		서정환	실용음악학과의 길과 속	시평(실용)
	제6호	김창옥	부산오페라하우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평
		강혜진	가르치고 배우며 만들어낸 가야금 소리	단평(국악)
		조태원	용감한 최재호의 대금	단평(국악)
		류태형	BN그룹과 함께하는 제5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시평
	제7호	김창옥	다시 오페라하우스를 생각한다	시평
		서정환	장미여관은 봉숙이가 있다	단평(실용)
		이문희	가야금산조의 멋과 한류 음악	단평(국악)
		백승현	서정성과 깊은 맛이 드러난 가야금 선율의 향연	시평(국악)
2013년 (10편)	제8호	서정환	케이팝, 표절공화국 만세	시평(실용)
		김지은	한국의 ‘레미제라블’은 없는가	단평
		김혜정	변화를 시도하는 김해시립합창단	단평
	제9호	서정환	조용필, 진정한 레전드인가	단평(실용)
		최 현	아리랑과 강남스타일	시평(국악)
		김창옥	바그너, 베르디, 그 다음은 누구인가?	시평
	제10호	김창옥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현황과 과제	시평
		서정환	K-pop은 보컬 천국	단평(실용)
	제11호	김추자	전통예술과 소통하는 힘을 보다	단평
		문성철	퓨전 국악을 바라보는 시각	단평(국악)

발행년도	발행호	저자	제목	장르 및 구분
2014년 (16편)	제12호	김창옥	우리 시대의 금지곡	시평
		서정환	록그룹 ‘스트레인저(stranger)’를 통해 부산의 록 문화를 회상한다.	시평(실용)
		강혜진	국악으로 가꾼 나무, 인젠가는 행복이라는 열매가	단평(국악)
		문성철	국악 속 외래음악	단평(국악)
	제13호	강혜진	국악 공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단평(국악)
		김수민	치유와 공감으로 다가서다	단평
		조태원	전통문화 기획자의 독백	시평(국악)
	제14호	정영진	2014 <부산민속예술축제>의 현장에서	시평(국악)
		김창옥	다시 음악을 생각한다.	시평
		서정환	1990년대 부산의 음악감상실	단평(실용)
		이미원	연주회를 모니터하다	단평
	제15호	강혜진	화, 시, 악으로 되찾는 마음의 여유	단평(국악)
		문성철	국악강사 제도의 명암	단평(국악)
		서정환	실용음악대학 현상에 대한 논의	단평(실용)
		최 현	국악과 K-pop	시평(국악)
2015년 (8편)	제16호	강혜진	『영남공연예술자료집 제4집: 강문득의 삶과 산조』	단평(국악)
	제17호	서정환	컴퓨터음악과 가상악기의 경향	단평(실용)
		김창옥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평가, 의화해야 한다	시평
	제18호	최 현	문묘제례악의 문화적 가치	시평(국악)
		서정환	현대음악비평의 방법적 문제-실용음악학을 중심으로	시평(실용)
		박희정	문화융성과 전통음악	시평(국악)
	제19호	서정환	음악의 엔딩과 다양한 시도	단평(실용)
		이다현	음악은 풍성하지만	단평(실용)
2016 (5편)	제20호	서정환	부산음악문화의 중심 <먹통>을 추억하며	시평(실용)
		강혜진	2016 산조의 새로운 탄생	단평(국악)
		문성철	부산문화재단의 재단법인화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도전	단평(국악)
	제21호	서정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경연프로그램의 부활을 통해 지역문화부흥을 꿈꾼다	시평(실용)
		김다니 엘라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죽음	단평

발행년도	발행호	저자	제목	장르 및 구분
2017년 (5편)	제22호	이다현	Jazz Concert ‘Asia Quartet’를 대구에서 만난다	시평(실용)
		김다니 엘라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에 대한 단상	단평
	제23호	서정환	피란시절 대중가요와 부산의 레코드사	단평(실용)
		이미원	예술행위, 노동인가 희생인가	단평
	제24호	서정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부산의 록음악	시평(실용)

2. 비평의 외적 분석

1) 음악비평 게재 횟수와 비중

지난 2011년 창간호부터 2017년 가을까지 발행된 『예술문화비평』 총 24권에 게재된 음악비평들은 모두 65편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한 호에 7편이 실린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 호에 2~3편의 음악비평이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예술문화비평』이 예술의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¹⁴⁾ 전체 비평 편수에서 음악비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지만,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회 빈도 등을 다른 장르와 비교한다면 편수가 다소 적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창간 이후 2014년까지 약4년 동안에 비해 2015년 이후의 음악비평 편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2016년 이후 발행 횟수나 면수가 불규칙하게 감소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 필자

조사대상 기간 동안 『예술문화비평』에 비평을 한 편 이상 기고한 필자는 모두 21명으로 나타났다. 『예술에의 초대』 필자 13명에 비해서는

14)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문화,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전통예술 등 11개 분야

많은 수이지만, 『예술부산』의 필자 37명에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기고 횟수 역시 두 월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총 비평 편수의 25%에 달하는 16편의 글을 기고한 서정환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김창욱 10편, 문성철과 강혜진 각 6편, 최현 5편, 이미원 3편 등의 순이었다. 소수 필자 주도 현상은 앞의 두 월간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타나 21명의 필자 중 4명의 필자가 38편의 글을 기고하여 그 비중이 60%에 근접하였다. 반면 과반수인 11명의 필자는 단 한편의 비평만 기고하였다.

비록 소수의 필자가 집중적으로 많은 기고를 하였지만 21명에 달하는 필자들이 음악비평을 기고했다는 점, 특히 이들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16명의 필자가 앞의 두 월간지 필자와는 중복되지 않는 필자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 음악비평문화의 양적 확대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게 만든다. 또한 국악 분야의 필진이 8명으로 다른 두 월간지에 비해 풍성한 편인데, 최현과 문성철, 강혜진이 각각 5~6편의 비평을 남겨 국악 분야의 비평을 주도하였다.

두 월간지와 『예술문화비평』의 대표적 필자들은 서로 겹치지 않았다. 『예술에의 초대』의 비평을 주도한 박진홍과 신설령은 『예술부산』에서 1~2편정도 기고하였으나 『예술문화비평』에는 단 한편도 기고하지 않았다. 『예술부산』에서 비평을 주도한 이아름과 김동녕 역시 『예술문화비평』과 『예술에의 초대』 양쪽 모두에 단 한 편도 기고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예술문화비평』의 주도 필자인 서정환 역시 다른 두 매체에 전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김창욱과 문성철은 앞의 두 월간지, 특히 『예술부산』에서 적지 않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비평대상 장르

비평대상과 내용에 있어 『예술문화비평』이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실용음악 분야의 비중이다. 앞의 두 월간지의 경우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전체 65편의 비평 편수 중 거의 30%에 달하는 19편이 실용음악 관련 비평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추세도 추세이거니와 부산 지역 대학 음악교육에 실용음악 분야가 도입된 지 이미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 시점에서 실용음악 역시 비평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국악 분야의 비중 또한 앞의 두 월간지에 비해 크다. 모두 22편의 비평이 게재되어 편수 면에서는 『예술부산』의 31편에 비해 적지만, 전체 비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30%로 『예술부산』의 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 음악계에서 아직도 국악 분야의 활동량이 서양음악 분야에 비해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비평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 클래식음악 분야의 비평은 모두 24편으로 국악과 실용음악 분야에 비해 조금 많긴 하지만, 앞의 두 월간지에 비해 현격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한 필자의 수는 10명으로 적지 않은 듯하지만, 10편의 글을 기고한 김창욱을 제외하면 대부분 1~2편의 글만 남겼다. 서양 클래식음악 분야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국악이나 실용음악 분야에 비해 크게 많은 점을 감안하면 비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양 클래식음악 비평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앞의 두 월간지 지면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시평과 단평의 비중은 각각 32편, 33편으로 거의 같았다.

V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부산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 정기간행물들이라 할 수 있는 월간『예술에의 초대』, 월간『예술부산』그리고 계간『예술문화비평』에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게재된 음악비평들을 전수 조사하여 정량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세 잡지에 실린 음악비평 편수는 『예술에의 초대』 87편, 『예술부산』 144편, 그리고 『예술문화비평』 65편으로 모두 296편에 달했다. 조사대상 기간이 7년임을 고려하면 연 평균 42.3편, 월 평균 3.5편의 음악비평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산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세 잡지 이외에 지역 일간지나 학술지, 서울에서 발행되는 전국 잡지들 등에 가끔씩 부산지역 음악문화와 관련한 비평이 실리기는 했지만 그 수가 미미하여 사실상 이 세 잡지에 게재된 음악비평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결과적으로 근년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진 음악 인프라의 총체적 성장이나 음악활동의 총량에 비해 비평 활동 총량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알 수 있었다.

음악비평 활동을 수행한 필자들의 수는 『예술에의 초대』 13명, 『예술부산』 37명, 그리고 『예술문화비평』 21명이며, 이 중 2명은 세 잡지 모두에, 10명은 두 잡지에 다중 기고하였으므로 실제 필자의 수는 57명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필자들은 자신의 전공 영역에 따라 비평 장르를 구분하여 기고하였는데, 서양 클래식음악 분야는 3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실용음악 분야는 가장 적은 3명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음악비평 필자들은 서양 클래식음악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국악 분야 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1년 이후 실용음악 분야에까지 필진이 확장된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세 잡지에 공통적으로 2~3명의 서로 다른 주도적 필자들이 있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며, 비록 한두 편의 비

평만 기고한 필자들의 수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부산 지역에서 음악비평에 참여한 필자의 수가 6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행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비평 장르 비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양 클래식음악이 우세했지만, 국악이 56편으로 19%, 실용음악이 20편으로 7%의 비중을 유지했다. 세 개의 잡지는 각각 특색 있는 장르별 비중 분포를 보였는데, 『예술에의 초대』는 거의 대부분 서양 클래식음악 관련 비평을 게재했고, 『예술부산』은 서양 클래식음악 이외에 국악 관련 비평에 22% 정도 지면을 할애했다. 또 『예술문화비평』은 서양 클래식음악과 국악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음악 장르까지 대등한 비중으로 다룬 점이 특징적이다.

다시 요약하자면 최근 7년간의 부산 지역 음악비평문화를 돌아본 결과 57명의 필자들이 세 개의 정기간행물에 한 달 평균 3.5편의 비평을 기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 결과만 놓고 보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추정했던 상황에 비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상보다 많은 수의 필진과 비평대상 장르의 다양화 현상은 긍정적 측면으로 파악되지만, 비평 게재 빈도가 7년간 월 평균 3.5편에 불과하다는 점, 또 필자들의 연 평균 기고 건수가 1편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근년 부산지역 음악문화의 양적·질적 성장에 비교해 볼 때, 같은 기간 음악비평 분야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은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차후 별개의 연구를 통해 진행되기를 기대하지만, 연구자는 지역의 음악비평 활동에 참여했던 필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현실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서두에서

평론가들의 지적을 인용했듯이 비평 활동 부진의 주요한 원인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 첫째, 평론가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미흡, 둘째, 시의적절한 비평이 담길 수 있는 음악전문잡지의 부재, 셋째, 필자들의 비평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문제, 그리고 비평 행위로 인한 음악계 내의 인간관계 훼손 우려 등이다.

비평 활동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상은 지역 음악문화에서의 음악 비평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비평 행위가 이른바 ‘가치제’로서 음악문화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구성원들 사이에 광범하게 공유되지 않고는 보상 수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또한 연주행위, 창작행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듯싶다.

음악전문잡지의 발행은 인적·물적 자원이 잘 결합하기만 한다면 다른 원인들에 비해 보다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앞서 소개했듯이 지역의 필자들이 뜻을 모아 음악비평전문지를 수년간 발간했던 경험도 있거니와, 여기에 일정한 재정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 필자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일정 부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들의 비평 자격 문제와 비평행위로 인한 인간관계 훼손 우려는 비평 행위가 가진 보다 본질적 속성의 문제로 여겨진다. 비평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자의 개별적 비평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데, 이는 필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자격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7년간 적지 않은 필자들이 음악비평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들 중 공식적으로 평단에 등단한 경력을 가진 필자는 거의 없다. 부산지역의 일간지 신춘문에 등에 음악비평 부문이 없어, 공인된 등용문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더욱 근원적인 문제다. 비평 행위가 원고 청탁만 받으면 사실상 ‘아무나’ 할 수 있는 활동쯤으

로 인식된다면 비평 내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자발적 수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역 음악비평 활동을 부진하게 만들어 왔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향후에도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 음악비평문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나름의 긍정적 측면도 발견한 만큼, 앞으로 부산지역 음악문화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비평 활동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저서

- 곽근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세종출판사, 1992.
 ———, 『또 한번의 연주』, 세종출판사, 1992.
 김원명, 『경제사회와 음악』, 세종출판사, 2001.
 ———, 『연주와 비평』, 세종출판사, 2003.
 ———, 『소리의 시선』,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1.
 ———, 『음악의 지평 너머로』, 더포인트, 2014.
 ———, 『지역예술의 현장』,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5.
 김창욱, 『부산음악의 지평』, 세종출판사, 2000.
 ———, 『나는 이렇게 들었다』, 세종출판사, 2011.
 ———, 『청중의 발견』, 해피북미디어, 2012.
 박진홍, 『글속에 음악을 담다』, 음악과생활, 2012.
 ———, 『음악으로 사색하는 즐거움』, 음악과생활, 2014.
 오재환 외, 『부산시 문화회관 운영개선방안』(정책현안연구 2014-10- 553), 부산발전연구원, 2014

2. 논문

김원명, 『부산의 정례음악회 현황 및 경제성에 대한 소고』, 『낭만음악』 제20권 제2호, 2008.

_____, 『지역음악축제의 방향과 과제』, 『음악연구』 제43집, 2009.

김창욱, 『부산 음악비평의 현황과 과제』, 계간 『예술문화비평』 창간호, 2011.

3. 정기간행물

(재)부산문화회관, 『예술에의 초대』, 통권229호~통권312호, 2011~2017.

(사)한국예총 부산시연합회, 『예술부산』, 통권71호~통권150호, 2011~2017.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예술문화비평』, 창간호~제24호, 2011~2017.

한국음악응용학회, 『음악응용연구』, 제4집~제9집, 2011~2017.

투고일 : 2017. 11. 06. 심사완료일 : 2017. 12. 15. 게재확정일 : 2017. 12. 20.
--

| Abstract |

The Recent State of Music Criticism Culture of Busan
- Quantitative Analysis of Music Criticisms in 3 Journals -

Kim, Won-M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rasp the state of music criticism culture of Busan during the last 7 years through the criticisms contributed on the monthly magazines *Invitation to the Arts* and *The Arts Town Busan*, and the quarterly *Criticism of Art & Culture*. For this purpose I have looked into and cataloged all the music criticisms contributed to the three magazines issued during 2011~2017, and analysed the data quantitatively focusing on frequency, writers, and genres.

The number of music criticism was 87 in *Invitation to the Arts*, 144 in *The Arts Town Busan*, and 65 in *Criticism of Art & Culture* respectively. This means monthly average was 3.5. The number of writers was investigated 13 in *Invitation to the Arts*, 37 in *The Arts Town Busan*, and 21 in *Criticism of Art & Culture* resp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multiple contributors(12) to more than two journals, the actual number of writers was 57. More than half of the writers contributed only one article and there were no more than 6~7 writers who had worked actively and continuously. By this point, we can anticipate a certain more activated music criticism culture if better condition were given henceforth.

The genres of the contents of the music criticisms show us some interesting facts. The cases of the two above-mentioned monthly magazines, almost all or a greater parts focus on western classical music events, especially big size concerts including orchestral music or opera. But the

quarterly *Criticism of Art & Culture* show some different aspects. It had contained much more comments on current topics in comparison with the two monthly magazines. Especially this magazine had provided nearly equal weight on western classical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popular music.

Key Word : Music Criticism, Music Critic, Busan, *Invitation to the Arts*, *The Arts Town Busan*, *Criticism of Art & Culture*

